보행자 중심 도시로의 전환 - 시드니 '그린웨이(Green Way)' 프로젝트 본격화

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25/may/09/car-free-green-corridor-connecting-cooks-river-to-sydney-harbour-to-open-in-2025?utm_source=chatgpt.com

https://www.innerwest.nsw.gov.au/live/environment-and-sustainability/in-your-neighbourhood/bushland-parks-and-verges/greenway/about-the-greenway/about-the-green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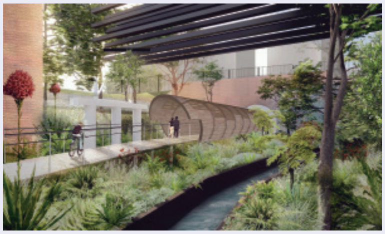
https://yoursay.innerwest.nsw.gov.au/greenway/view-updated-designs

호주 시드니는 2025년 말까지 쿡스강(Cooks River)과 파라마타강(Parramatta River)을 연결하는 약 6km 길이의 차량 없는 '그린웨이(Green Way)'를 개통할 예정이다. 그린웨이는 도시 내 녹색 교통과 생태 회복을 동시에 실현하려는 계획에 따라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 조성되는 전용 통로로,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 환경을 제공하는 도시 기반시설이다.

그린웨이는 1990년대 후반, 지역 주민들과 환경·자전거 단체들의 자발적인 제안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참여와 시 정부의 협력을 통해 실현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산책로나 자전거 도로를 넘어 지역의 생태, 교통, 문화, 교육, 공동체 기능이 결합된 도시재생 플랫폼으로 설계되어 유휴 철도 회랑과 운하 주변의 저활용 공간을 활용해 도시공간을 재해석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를 비롯해 생태 복원 구역, 야외 운동장, 공공 예술 작품, 커뮤니티 정원 등이 포함되며, 주민과 자연·문화가 함께 숨 쉬는 생활 중심 회랑으로 운영된다. 시는 회랑 내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전기 자전거나 자율주행 셔틀 등 탄소중립형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시드니가 추진 중인 2030년 교통 및 환경 전략과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시는 그린웨이를 통해 도심 내 차량 의존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을 저감하며,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역 커뮤니티의 일상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사회적 연결성과 공동체 활동의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드니시는 앞으로 차량 없는 그린웨이를 도심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이동 및 건강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쿡스 강과 시드니 항을 연결하는 그린웨이
출처: 이너 웨스트 의회. https://yoursay.innerwest.nsw.gov.au/greenway/view-updated-designs (검색일: 2025.5.22.)

파라마타 로드 아래와 호손 운하를 따라 이어지는 캔틸레버 보도